

## **2022 LEC Korean Handwriting Contest Information**

**PRIZES:** Traditional artisan crafts for top 5 winners, coffee gifticon for 20 participants(raffle)

**ELIGIBILITY:** GIST international community members only

**DEADLINE:** October 28th (Fri.), 2022

**WINNER ANNOUNCEMENT:** November 4th, 2022 (Fri.) on the LEC website

### **CONTEST DETAILS**

- (1) Handwrite a Korean poem on paper. See the attachment below for suggested poems or find your own Korean poem.
- (2) Any materials and size are allowed, but you must write the poem by hand in Korean.
- (3) Decorations, paintings, and coloring are optional and are not part of the evaluation criteria.
- (4)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help, feel free to contact the LEC.

### **SUBMISSION DETAILS**

- (1) Scan and submit a .pdf file of your handwritten poem in Korean to [gistlec.korean@gmail.com](mailto:gistlec.korean@gmail.com)
- (2) Deadline: October 28th (Friday) 23:59PM (late submissions will not be accepted).
- (3) By entering this contest, participants give LEC permission to post their work on various online platforms such as webpages for LEC, GIST, and GIST College as well as LEC's YouTube, Instagram, and Facebook page.

### **(4) CONTACT**

General Inquiry (LEC Admin): [sijackie@gist.ac.kr](mailto:sijackie@gist.ac.kr) / T.062-715-3703

## Suggested Poems

### 1) <Autumn Prayer> by Kim Hyunseong

####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 2) <Spring Road> by Chung Hoseong

###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을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3) <Ivy> by Do Jonghwan

####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 4) <Flower> by Kim Chunsu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